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을까요? 아침 7시뉴스의 첫마디 외침이다. 아니 외마디 절규였다.
KAL 801편 여객기의 괌추락 참사는 우리나라를 항공사고 다발국으로 인식시키는 오명을 다시한번 안겨줬다. 국내에서 82년부터 95년까지 14년동안 발생한 항공관련사고는 헬기와 경비행기까지 포함해 모두 26건으로 576명의 사상자와 1798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6건의 사고 중 기체이상과 원인불명이 1건과 5건이고, 나머지 21건은 조종사 과실에 따른 것으로 판명됐다. 대부분 인재인 셈이다.
항공사고 비교분석지표로 통용되는 10만비행시간당 사고건수를 보면 국적항공사는 1.33건으로 세계평균인 0.87건 보다 훨씬 많다. 또다른 지표인 1억㎞당 사망사고건수도 세계평균이 1.41인데 비해 국적항공사 여객기는 2.24에 이른다.
항공기 노후화와 무리한 운항도 항공사고 다발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령 20년이상 항공기 보유대수가 11대에 이르고 전체 보유항공기 114대의 평균기령은 7.9년이다. 97년 상반기 대한항공은 정비가 필요해 운행을 지연시킨 사례가 94건, 결항이 13건이었다. 뒤늦게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4건과 2건에 불과했다.
자동차 교통사고는 항공사고를 비웃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70년 자동차 보유대수가 12만8298대였고 3만72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069명이 숨졌다. 96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955만3092대로 26년만에 75배 가량 늘어났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4.1배 늘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8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1563명으로 1만명대를 넘어섰고 87년대비 60%나 늘었다. 9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만3429명을 기록한 뒤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95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96년에는 1만265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일본도 1000만대 시대가 열린 67년 1만3618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차량 1만대당 13.6명을 기록, 일본정부가 사고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96년 1만대당 사망자가 1.5명으로 줄었다.
한국의 교통문화가 후진국이라는 점은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보행자라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96년 자동차 1만대당 13.2명이 사망했다. 일본의 9배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한마디로 나 편하면 그만이라는,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에 80년이후의 투기바람에 국민일반이 멍들어 「돈」이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일반화됨으로써 인명경시풍조가 하늘에 닿아 일어난 총체적 난국의 한가지 예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들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몰아야 하고, 경제는 멍들어 가는데도 괌으로, 사이판으로, 파파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또 젊은 여성들이 「젖가슴」을 반쯤 드러내놓고도 전혀 창피한 기색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돈」과 「육체」 뿐이요, 자포자기인 것이다.
「한국」의 장래가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느낌도 가질 수 없다. 왜, 그러할까?
80년, 전두환·노태우의 반란군 수괴들이 정권을 거머쥐면서 내놓은 첫작품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언론을 통폐합하면서 비판적인 기자들을 대량 해고한 뒤 언론사에 대규모 은행융자를 알선하고 나머지 기자들의 급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고, 둘째가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 자동차사고를 일으켜도 구속을 면하게 한 조치였다.
언론재벌과 배부른 기자들이 「참」을 외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부동산투기와 증권투기를 조장·방조했음은 물론이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에 대해서도 「한계선」을 넘지 않았음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뿐인가. TV는 호화사치를 조장하고, 촌지라는 이름의 구린 「뒷돈」은 국민일반을 볼모로 날이면 날마다 유행을 창조하고 재벌 살찌우기에 앞장섬으로써 오늘의 난국을 초래하고, 국가 장래

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멀리는 8.15이후 친일파의 득세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말로는 …

<화학저널 1997/8/18>